“생명나눔 후원회원 확대로 제2의 도약할 터”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⑫ 이사장 일면스님 인터뷰

대담=김주일 기자, 정리=임은호 기자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단체로, 생명나눔 문화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불가항력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눈에 띄는 사업성과를 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전년에 비해 143% 증가한 3100명을 모집, 3년 만에 모집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홍보 캠페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룬 성과다. 대면활동이 희망등록 성패를 좌우하기에 더욱 뜻깊다.

성과의 중심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일정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참석해 희망등록을 직접 권선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단체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라면서 “이를 이어가기 위해 전 직원이 일심단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6일, 올 한 해 그 누구보다 힘차게 달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만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2023년 계묘년(癸卯年) 계획을 들어봤다.

전국 180 복지관 릴레이 캠페인
코로나19 이후 첫 목표치 달성
고난은 첩경…“어려움은 기회”
전 직원 발로 뛴 일심단결 결과

간 기증받아 새 생명 얻은 기억에
매일 이름 모를 청년 위해 기도
주석처 불암사 천도재 외연 확대
본부 활동 믿음 간다는 평가받아

2023년 30주년 ‘제2 도약’ 기대
후원자 확대 중점사업으로 선정
일면 스님이라는 개인 원력 아닌
공익법인 확고한 자리매김 서원



일면 스님은… 1959년 해인사에서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승가대학,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으며 조계종 포교부장, 사회부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교육원장, 군종특별교구장, 동국대 · 광동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Q 2022년 한 해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펼친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설립목적이자 최대사업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실적이 최근 2년간 매우 저조했습니다. 전 직원이 일심단결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2020년에는 목표치의 71%를, 2021년에는 43%를 겨우 넘겼습니다. 올해도 사회 분위기가 비대면으로 지속되면서 4월까지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모집은 캠페인을 통한 대면활동이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캠페인이 필요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협력, 산하 180여 개 복지관에서 5월부터 적극적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고 10월 경 정부와 약속한 모집목표(3000명)를 100% 이상 달성했습니다. 12월 현재 3100명이 모집된 상태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모집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전 직원이 일심으로 단결한 결과입니다.

Q 올 한 해 희망등록 목표치 달성을 위해 역점을 둔 전략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시작과 함께 대단위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산하에 있는 전국 180여 개의 복지관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보겠다는 마음으로 대표이사 보인 스님을 직접 찾은 것입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릴레이 캠페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지관을 소개받아 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친 후 그곳에서 다음 복지관을 소개를 받아 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복지관도 개념치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희망등록을 한다면 대한민국 저 끝까지라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반년 이상을 달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근무하는 복지사들인 만큼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넘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권선했습니다.

Q 이사장 스님께서 언제 어느 현장에서든 직접 희망등록을 권선하는 모습을 보곤 감동했다는 불자분들을 취재현장에서 꽤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1993년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16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기적같이 나타난 기증자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은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 발원했습니다.

올해 릴레이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하안거를 떠났지만, 캠페인을 진행해준 관장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법납이 상좌를 넘어 손상좌나 다름없는 관장스님들은 제 전화와 문자를 받고 몸 둘 바를 몰라 하기도 했습니다. 복지관 릴레이 캠페인 결과 1000여 명의 동참자를 이끌어냈습니다.

Q 복지관 릴레이 캠페인 외에도 특별히 신경 쓴 캠페인이 있을까요?

광동학원 이사장을 오랜 기간 역임한 저는 교육을 통한 생명나눔 가치 전달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당장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명나눔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광동학원 학생들은 캠페인뿐 아니라 걷기대회, 봉사활동 등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석합니다.

동국대 참사람사회공헌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내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꾸준히 개최했고 500여 학생이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전년 43회에 비해 3배 이상인 128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3일에 한 번꼴로 캠페인을 펼쳤다는 것인데, 이는 전 직원이 전국 곳곳을 누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희망등록 부스에도 신경 썼습니다. 불심 있는 직원을 상주시켜 운전면허를 위해 시험장에 오는 방문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자 올해 생명나눔대상 시상식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게 생명상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Q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편견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움은 기회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고난은 오히려 성과를 이루는 첩경(捷徑)이라는 생각으로 삶에 임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도 역시 코로나19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었지만, 교계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계에 종사하고 계신 스님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줘 장기기증 희망등록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Q 실천서약 및 등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기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교육과 홍보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SNS와 소식지 ‘행복한 빈손’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담사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8년부터 소식지 ‘행복한 빈손’를 매달 제작해왔습니다. 법문이 담긴 ‘생명나눔 편지’ 서부터 생명나눔 실천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고 장기기증 서약 방법을 담은 ‘함께해요 생명나눔’ 치료비 지원이 간절한 이들을 소개하는 ‘이달의 환자’ 희망등록자 및 후원자 명단이 기록된 ‘생명나눔 소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300호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매달 1만 4000부가 전국 후원회원과 각종 기관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지가 후원자들이 자신의 후원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생명나눔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의 장기기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에는 법인 SNS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정보제공뿐 아니라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계 언론뿐 아니라 사회복지분야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배포, 홍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Q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생명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장기를 기증한다는 것은 불교의 근본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장기기증을 통해 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은 최고의 자비인 동시에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동체대비 사상의 가장 헌신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계 안팎으로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활동 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나눔 활동에 참여하길 염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회와 타인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로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전쟁 등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공무희생자까지 범위를 넓혔고 세월호와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는 위패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Q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내년 활동 계획에서 눈여겨봐야할 계획과 사업이 있을까요?

내년이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설립된 지 29주년이 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현재 후원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2005년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만 해도 회원은 2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크나큰 발전이지요.

그러나 후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10만 여명에 그칩니다. 사업이 커지고, 후원이 필요한 이들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후원자 수는 법인의 피땀 어린 노력이 담긴 역사의 공익법인으로서는 아쉽기 그지없는 수치입니다.

이에 2023년은 ‘후원자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눔실천본부라고 하면 저, 일면 스님을 떠올립니다.

개인의 원력이 지금까지 법인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공익법인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30년, 100년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현대불교신문 독자여러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Q 연말연시를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자들과 불자들에게 희망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를 의미하는 해입니다.

계묘년 새해 세간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긴 삼동을 이겨내면 처처에 동백꽃이 활짝 피고 복사꽃 망울지고 산빛도 물빛도 고와짐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아 재난을 피한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지혜와 노력으로 불황의 삼동을 극복해 나가길 서원합니다.

“장기기증은 최고 자비인 동시에
부처님이 강조하신 동체대비의
가장 헌신적인 실천행입니다”





일면 스님은 각종 행사에 참석, 직접 희망등록을 권선한다.



남산 일대에서 열리는 희망걷기대회를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린다.



문화를 통해 생명나눔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리는 산사음악회서는 기금전달도 진행된다.



매년 겨울, 따뜻한 정나누기를 통해 소외이웃에 이불과 먹거리 등을 전달한다.